

# ‘전자담배가 더 해로워(?)’ 애연가들 혼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처럼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건당국의 발표로 애연가들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전자담배의 필요성이 사라져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일부 흡연자들은 이참에 금연을 결심하기도 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의 복합적인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도 5개나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유해하다는게 보건당국의 최종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

## 보건당국 “타르 일반 담배보다 높은 수준” 사용자 “유해물질 적다는 업체 상술에 속아” 일반담배로 전환하거나 금연 늘어날 듯

는 발표 뒤,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입장과 담배 제조사들의 검증되지 않은 마케팅에 속았다는 흡연자들의 하소연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자담배를 선호했던 흡연자들은 높은 타르 수치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D포털 한 게시판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맛이 떨어지더라도 인체에

덜 해롭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타르 등 유해성분이 더 많이 검출돼 다시 일반담배로 바꿀까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직장인 신 모씨(40)도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고 찌는 방식이어서 타르가 거의 없다고 믿어 왔는데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이다”며 “전자담배에도 유해성 표시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당국의 이런 분석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겠다는 애연가들도 적지 않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담배는 불에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초를 전용기에 꽂아 가열해 흡연하는 방식이라, 유해물질이 더 적다는 제조사나 다른 해외 조사 결과를 맹신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년째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는 정 모씨(41)는 “전자담배라고 특별히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며 “냄새가 적게 나고 갈끔해서 비싼 기기를 샀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퍼지면서 금연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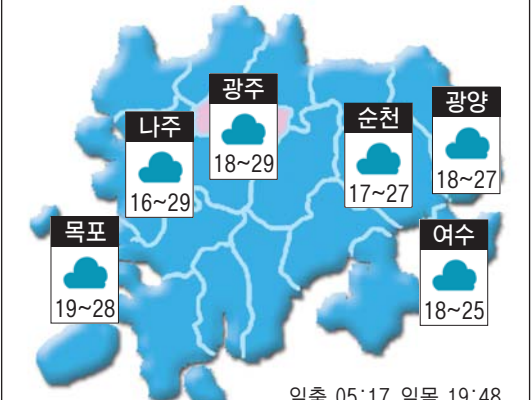
지역업자 남 모씨(42)는 “건강을 위해 최근 1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구매해 이용했지만 정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업계에선 매출 하락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다”며 “냄새 등에 민감한 영업사원이나 여성·대학생 층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향후 시장도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일출 05:17	일몰 19:48	월출 05:38	월몰 20:12
장성	16~28	혁신도	17~23
담양	16~29	구례	15~28
화순	17~28	곡성	15~29
영광	17~29	완도	18~25
함평	18~30	강진	18~26
무안	17~28	장흥	17~26
영암	17~27	해남	17~26
진도	18~25	고흥	17~25
신안	18~28	보성	16~25

### 광전극 결정 방향 제어 친환경 수소생산 GIST 이상한 교수팀, 광반응 특성 밝혀

국내 연구진이 광전극의 결정 방향 제어를 통해서 친환경 수소 에너지 생산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GIST 신소재공학부 이상한 교수 연구팀은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이 결정 방향에 따라 상이한 광반응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 고효율의 물 분해 수소 생산을 위해 광전극의 결정방향 제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전극은 태양빛을 흡수해 전자들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만들어진 전극을 말한다. 발생한 전자들은 물과 반응해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연구팀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광전극 물질인 비스무스 바나데이트가 결정의 방향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전하 전달 특성을 가짐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밝혔다. 연구 결과,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 박막은 결정방향에 따라 전하 전달 특성에 의존하는 광전류 밀도 값이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상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대표적인 광전극 물질인 비스무스 바나데이트가 근본적으로 결정방향에 따른 전하 전달 특성에 있어 이방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특정 결정방향으로 합성된 광전극을 제작하는 것이 수소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광주대 축구부 잇단 선형 눈길 절도범 검거·응급환자 초기 대응

광주대 축구부 학생들이 절도범 검거와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잇단 선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축구부 강영훈 학생(2년·DF)은 지난달 27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범인을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휴일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강씨는 집에 가서 동생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한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A씨를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동생들과 함께 10여 분간 범인을 뒤쫓으면서 112에 신고해 도주 경로를 알려줘 경찰이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이 같은 선형은 해당 경찰서에서 학교로 ‘선형 학생 격려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축구부 김수환 학생(1년·FW)은 지난달 8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축구대회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 당시 심판이었던 김씨는 경기 중 선수들끼리 충돌 후 넘어진 한 선수가 호흡 곤란 증세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는 119에 신고한 뒤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김씨는 쓰러진 선수가 의식 없이, 혀가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을 확



절도범 검거와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선형을 한 광주대 축구부 강영훈(2년·원쪽)·김수환(1년·오른쪽)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인하고는 곧바로 기도를 확보해 호흡을 안정시킨 뒤 119에 인계를 했다. 호흡곤란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김씨의 초기 대응 덕분에 해당 선수는 큰 부상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광주대는 두 선수에게 선형 표창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대 축구부 이승원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열심히 훈련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선수들에게 축구 실력 뿐 아니라 인성도 강조했는데, 실천해줘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제7회 지방선거 개표 ‘한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선거종사원들이 서구갑선거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시교육청, 계약서류 자동 프로그램 배포 계약자료 입력시 자동 작성...업무경감 기대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공사계약서류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등 각급 기관이 공사를 계약할 때 업체에서 제출하는 공사표준계약서, 착공계 등 약 20가지 제출서류의 통일된 양식이 없어 업체별로 통상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해 제출했

다. 이번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공사업체가 제출하는 각종 계약서류가 통일되고 작성 업무가 경감돼 계약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셀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사계약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사명 등 기초 자료 한

장만 작성하면 나머지 공사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이 되므로 필요에 맞게 출력만 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공사서류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업체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공사서류 양식 통일로 단위 학교의 공사 서류 누락 방지 등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업무경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청렴도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co.kr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R&D	
세 라 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R&D	

※ 접수문의: 담당자 06)370-2137, recruit@dase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